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성 복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스티로폼을 통한 환경오염 표현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2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김 재 인

스티로폼을 통한 환경오염 표현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성 복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김 재 인


인 준 서

김재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3년 11월

심사위원장 장옥희 

심사위원 신성욱 

심사위원 김성복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만으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현대에 와서는 다수의 기사나 영상 매체를 통해 세계 각국의 사건 사고들을 쉽게 접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본인은 현대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오염과 관련된 여러 문제 중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의 사용과 관련하여 관심 갖게 되었고, 현재 본인의 작업과 연관하여 작업의 매개체로 사용하게 되었다.

환경오염은 비단 본인만의 일이 아닌 온 나라와 세계가 관심 갖고있는 문제에 틀림없지만 그 인식에 있어서 위중한 상황임에도 좌시되고 있는 것은 앞서 언급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수반한다.

인류가 편의를 위해 만들어낸 만능소재로 알려진 플라스틱은 19세기에 개발되어 20세기 중반쯤 단숨에 보편화 된 인공 소재로 불리는데 현재까지 일회용품의 아주 큰 비중으로 자리 잡고 그 사용의 추이가 가파르게 올랐고 생산되는 비율과 함께 폐기 처리되는 비용도 어마어마한 양으로 늘어났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장기간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절반이 4년이 채 되기 전에 버려지고 간편함을 요구하는 현대인들의 요구에 맞게 일회용품의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환경 운동가나 설치 미술가 또는 환경 예술가들은 일회용품 특히 플라스틱 소재의 급증한 우리의 환경이 오염되고 변화되는 것을 수시로 경고하고 있다. 본인 역시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현재 본인의 작업을 관람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고취 시키는 사례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본인이 2023년 석사청구전에 출품한 작품을 토대로 2022년 작품과 2023년 작품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 1 장 서론에서는 본인 작품의 제작목적을 비롯해 앞으로 작품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의 연구 방향에 관해 서술하였다.

제 2장 본론에서는 첫째, 작품의 형성배경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환경에 관한 인식을 고취 시키는 작품들에 관해 서술하였다. 둘째, 이를 표현하는 본인만의 작품 제작방법에 관해 서술하고 주제와 재료에 관해 서술하였다. 셋째, 본인의 연구 작품을 개별 설명함으로써 어떤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해 서술하였다.

제 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 전체 내용을 정리하여 앞으로 본인이 작업에 필요한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II. 본 론	3
1. 작품형성배경	3
1) 러버덕	5
2) 일상에서 접한 플라스틱의 낭비 사례	7
2. 작품표현방법	9
1) 다양한 재질로 표현된 돌의 가공	10
2) 혼합 매체 사용	13
3. 작품분석	15
III. 결 론	47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비 내리던 밤	15~17
【작품 2】 비 내리는 골목길	18~19
【작품 3】 미운 오리 새끼	20~22
【작품 4】 미운 청둥 오리 새끼	23~25
【작품 5】 새콤해	26~28
【작품 6】 비릿해	29~31
【작품 7】 2+1	32~34
【작품 8】 폼 잡는 미운 오리 새끼	35~37
【작품 9】 from엄마	38~40
【작품 10】 from동해	41~43
【작품 11】 산란기	44~46
【작품 12】 산란기	44~46

I. 서론

인간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활에 있어 좀 더 실용적이고 편리한 방안을 추구한다. 그로 인해 인간의 편의를 위한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여 핸드폰만으로도 어디서든 원하는 상품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결제하여 받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인간이 하던 “배송”이라는 직업 중 하나 역시도 드론이라는 로봇이 대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만큼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 편의를 위해 발전되었던 것이 인공지능과 과학의 발전뿐이었을까? 편리한 기술이 적용되면서 여기저기서 각종 ‘환경오염’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인간의 편의를 위한 기술발전만이 아닌 환경오염 대책기술 발전을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획기적인 발전”이 시급한 상태이다.

지구에는 인간만이 유일한 생명체가 아니고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체가 존재한다. 하지만 인간은 먹이사슬 최상위의 포식자답게 이를 좌시해오다 현대에 와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결과를 곳곳에서 감지하면서 그로 인해 여러 환경단체나 현대인들에게 관심이 조금씩 생기고 있고, 현재는 세계 각국에서 나름의 노력을 시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본인은 뉴스나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해온 “환경오염”에 관해 관심을 가지면서 실생활에서 직접 접하며 느꼈던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에 관해 생각하게 되었고, 이는 본인의 작품을 제작하게 되는 주제가 되었다.

특히 실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플라스틱 제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1)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지구의 생명체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에 주목하

1) 윌 맥컬럼 『플라스틱제로 플라스틱 없는 삶』, 하인해 옮김, 북하이브 (주)타임교육C&P, 2020 미세 플라스틱의 정의 039p.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를 의미하며 조각, 파편, 알갱이, 섬유 등 형태가 다양하다 미세 플라스틱에는 마이크로비즈처럼

며, 플라스틱 재료가 다시 가공된 ‘스티로폼’이라는 재료에 관한 표현으로 본인의 작품을 전반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조금의 반어적인 언어유희와 함께 본인의 작품을 관람하는 관람자에게 예술작품을 선보임과 동시에 “환경”이라는 우리의 광범위한 생활 터전에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오염”의 상태를 본인의 작품을 통해 가시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반성하며, 다 함께 고민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본인의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애초부터 작게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비닐봉지, 플라스틱 병처럼 큰 플라스틱에서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마모되어 나온 조각들도 있다.

II. 본 론

1. 작품 형성 배경

집으로 돌아가는 어느 비 내리던 밤에 우연히 마주하게 된 골목길 가로등 아래의 쓰레기 더미들은 나의 발을 잠시 멈춰 서게 한 뒤 한참을 물끄러미 바라보게 할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중 유독 눈에 들어왔던 비가 고인 웅덩이를 유유히 떠다니는 듯 보였던 스티로폼 조각은 버려진 미운 오리 한 마리가 홀로 떠돌아다니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버려졌다”라는 의미를 곱씹어봤던 것 같다. 인간의 편의로 인해 그리고 그 이기심으로 인해 만들어진 대부분의 물질들은 결국에 버려지는 것들이 많다는 생각을 통해서 과도한 생산으로 인한 과도한 소비 그리고 폐기되기까지의 과정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졌다.

2)서론에서 언급했던 ‘플라스틱’은 다양하게 재가공 되었고, 그중 본인이 가장 흔하게 접하는 재료 중 하나인 “스티로폼”은 매우 가벼우면서 방수이고 충격을 흡수할 수도 있으며 음식에 닿아도 무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한 이유로 스티로폼은 우리의 생활에 만연해 있는 재료 중 하나이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음식 포장 용기에서 오토바이 헬멧까지 정말 많은 곳에 사용된다. 단일 효과도 매우 뛰어난 스티로폼은 찬 음료와 따뜻한 음식을 보관하는 용기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흔히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배달경제에서도 스티로폼을 쉽게 접한다. 스티로폼 용기에 담겨 배달되는 수많은 음식들은 스티로폼 완충제에 감싸져 배송되는 상품들을 우리는 밤, 낮 구분 없이 볼 수 있다.

2) 마이클 스타코워치 『우리가 바다에 버린 모든 것』, 서서재 옮김, 하바탈, 2023 p.275

어쩌면 3)24시간 배달되는 배달체계는 다른 말로 하면 24시간 쓰레기를 생산하는 쓰레기 생산체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열에도 탁월하지만 우리가 아는 스티로폼의 제일 대표적인 특징은, 스티로폼 구성하는 요소 중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공기이다. 우리의 신체 비중의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물인 것처럼 스티로폼의 구성은 공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말은 즉 스티로폼이 다른 소재보다 물에 잘 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해안가에서 쉽게 스티로폼 제품을 볼 수 있는데, 구멍조끼, 구멍튜브, 바다에 떠있는 부표까지 대부분 스티로폼으로 제작되어 진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이 4)우리나라 양식장에 흔히 쓰이는 60리터짜리 스티로폼 부표가 연간 200만 개 생산되고 있다. 스티로폼 부표를 재활용하기 위해 해변정화 작업으로 수거하기도 하고 어민들이 직접 반납하기도 하지만 상당량이 수거되지 못하고 바다로 유실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스티로폼 부표 한 개가 수백만 개의 미세플라스틱으로 부서져 해양을 오염시키고 스티로폼 쓰레기들은 파도를 타고 세계 여러 해변에 떠밀려온다. 스티로폼 부표로 인한 스티로폼 쓰레기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5) ‘스티로폼’은 해변에 버려진 쓰레기 데이터 기록을 보면 플라스틱과 구분되어 별개의 항목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이유는 버려지는 스티로폼의 양이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스티로폼을 주재료로 제작된 다양한 제품들과 스티로폼 자체로 만들어진 물건이 수없이 버려졌기 때문이다.

스티로폼에 관한 조사를 하고 아주 조금 시선을 돌리고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비 오던 밤의 그 떠다니는 스티로폼 조각들이 결국은 어디로 흘러들어갈 것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대체 재료를 찾음과 동시에 줄여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3) 이동학 『쓰레기책(왜 지구의 절반은 쓰레기로 뒤덮이는가)』, 개인저자, 오도스, 2020 p.136

4) 홍수연 『통영 굴 양식장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로 인한 해변오염 평가 및 투기량』, 경남대학교 첨단공학과 국내박사 2014 p.2

5) 마이클 스타코위치 『우리가 바다에 버린 모든 것』, p.276-277

1) 러버덕

본인의 유년시절 TV 만화영화를 볼 때면 가끔 목욕하는 장면에서 아이들이 노랗고 귀여운 오리를 욕조 안에서 가지고 노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나의 집에는 욕조가 있지 않아 그 장면을 신기하게 바라본 것 같다. 우연히 엄마와 장을 보러 간 나는 시장에 있는 장난감 가게 좌판대 위에 만화영화에서 본 그 노랗고 귀여운 오리를 마주했다. 그 시절에는 ‘러버덕’이라는 이름도 모르고 만화영화에서만 보았던 나는 엄마를 졸라 러버덕을 구매했다. 집에 오자마자 고무대야에 물을 받고 대야 안에 들어가 한참 동안 러버덕을 가지고 놀았고, 몇날 며칠동안 러버덕을 가지고 목욕을 했던 기억이 있다. 그런 유년시절의 나의 기억을 함께 한 러버덕을 현재의 나는 스티로폼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던 중 다시 ‘러버덕’의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러버덕은 나의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연상 되었다. 러버덕의 주재료는 고무이다. 이름 그대로 고무로 만든 오리 형태의 인형이다. 고무는 스티로폼과 같이 물에 잘 뜨는 재질이다. 이 역시 스티로폼과 같이 플라스틱을 재가공한 재료로 제작되었다.

내가 처음 대형 러버덕을 만났던 석촌호수에서 이슈를 받기 전 유명한 일화를 들은 적 있다. 6)1992년 수만 개의 러버덕 장난감을 실은 화물선이 홍콩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던 중 우리나라 부근 해상에서 폭풍우와 조우하여 수만개의 러버덕이 들어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해상에 떨어뜨리게 되어 수만개의 러버덕이 파도에 떠밀려 해류를 따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러버덕들은 세계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혀졌고, 이 사건 이후 러버덕의 이동 경로를 조사해 해류의 흐름에 자료로도 활용되기도 하였고, 해변에서 러버덕을 접한 사람들로 인하여 치유와 평화를 전달 해주는 오리라는 뜻을 갖게

6) <https://daishinblog.tistory.com/1700> 출처 : 러버덕 프로젝트 서울 공식페이스북

되었다고 한다.

이후 현대에 러버덕이 또다시 큰 이슈를 받게 된 것은 네덜란드 출신 공공 미술가이자 러버덕의 아버지로 불리는 ‘플로렌타인 호프만’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나라 석촌호수에 가로 16.5m, 세로 19.2m, 높이 16.5m에 1t 달하는 러버덕을 띄웠다. 전 세계 곳곳에 치유와 평화의 상징인 러버덕을 설치한 플로렌타인 호프만은 7) “러버덕 프로젝트는 국경도 경계도 없으며 어떠한 정치적 의도를 띄고 있지도 않다. 나는 러버덕 프로젝트를 통하여 전 세계의 갈등과 긴장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라고 전했다. 설치 이후에는 거대한 러버덕을 처리 하는데 있어 폐기물 논란이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지만, 철수한 러버덕의 8)러버덕 원단을 활용하여 제작된 업사이클링 상품이 약 1000개에 달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기부와 이벤트 증정용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또 한 일부 제품은 지구를 위해 친환경 활동에 참여하는 고객들과 119개의 굿즈는 송파지역의 소방관들에게 기부할 예정이라 하였다. 이처럼 환경을 생각하여 기본 재료를 다시 활용하는 ‘리사이클링’ 기능보다, 기본 재료에 다른 기능들이 더해 더욱 가치 있는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업사이클링” 체제를 도입한 좋은 사례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여전히 다량의 폐기물들은 버려지고 있다. 러버덕은 언뜻 순기능을 잘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런 러버덕과 나의 오리 형태는 생김새가 비슷하게 닮아있지만, 치유와 평화의 상징을 뜻하는 러버덕과는 반대로 나의 작품의 오리는 버려지고 홀로 떠다니는 ” 미운 오리 새끼 “로 표현되어 인간의 이기와 무분별한 자연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7) [https://ko.wikipedia.org/wiki/%EB%9F%AC%EB%B2%84_%EB%8D%95_\(%EC%98%88%EC%88%A0%ED%92%88\)#cite_note-ekn-5](https://ko.wikipedia.org/wiki/%EB%9F%AC%EB%B2%84_%EB%8D%95_(%EC%98%88%EC%88%A0%ED%92%88)#cite_note-ekn-5) 출처 : 위키백과

8) <https://biz.chosun.com/distribution/channel/2022/12/07/B6SJHWWTONCLJNMHAG7NQQMYUE/> 출처 : 조선비즈

2) 일상에서 접한 플라스틱의 낭비 사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의 낭비의 수요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현대에 만연해 있는 제품들이 다양하다. 9)은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생산량과 그 행방을 연구한 결과 66년 동안 리사이클 비율은 겨우 9%에 해당하고 조사에 따르면 1950년에 연간 약 200만 톤이었던 세계의 플라스틱 생산량은 해마다 늘어서 2015년에는 4억 700만 톤이 되었고 이런 추세로 계속 늘어난다면 2050년에는 16억 톤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10)2021년 기준 전 세계 부문별 플라스틱 소비량은 포장재 1억 7,200만 톤(44%), 건축 및 건설 7,000만 톤(18%), 차량3,100만 톤(8%), 전기·전자 제품 2,700만 톤(7%) 등이다. 국내 한국석유화학협회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플라스틱의 부문별 사용 비율은 포장재 36%, 건축 22%, 자동차 11%, 전기·전자 8%, 일회용품 6% 등이다. 일회용품에는 컵라면 용기, 일회용 도시락, 요구르트 용기가 포함되어 있어 포장재로 분류될 수도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부문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류를 포함한 포장재이고, 플라스틱 폐기물 중 포장재 폐기물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인인 본인으로서도 수치만 듣고 가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11) ‘지구 위 플라스틱의 총 무게는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포유류 동물 총 무게의 두 배에 달하고 그중 단 9%만이 재활용된다.’ 앞서 언급 한대로 실제 83억 톤 이상이 되는 플라스틱이 거의 대부분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그 중 재활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겨우 9%에 해당 된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

9) 인포비주얼 연구소 지음, 『그림으로 읽는 친절한 플라스틱 이야기』 위정훈 옮김, 도서출판 북피움 2021 p.14-15

10) 최형진 『플라스틱 폐기물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인벤토리 구축 : 포장재와 일회용품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2023 p.12

11) 루시 시글 『지구생활자를 위한 시시콜콜 100개의 퀘스트』, 이상원 옮김, 도서출판 지상의책 2023 p.136

이다.

코로나로 세계인이 고통 받던 2021년쯤 뉴스에서 접한 기억이 있는 중국의 쓰레기 수입금지로 인해 흔히 말하는 여러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쓰레기를 받아줄 곳이 없게 되었다고 한다. 선진국들의 재활용 쓰레기들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 나라들로 수출이 되어왔다는 것을 사실이 드러났을 때, 세계의 오염을 도맡고 있다고 생각했던 중국이 또 어떤 면에서는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의 쓰레기처리를 대신하고 그들의 부정한 인식까지 함께 맡고 있었다는 생각에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선진국은 쓰레기를 수출하고 후진국이라 명명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나라의 선택지 없는 쓰레기 수입은 환경을 병들게 하는 악순환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12)프랑스는 2016년 8월 세계 최초로 자연 및 경관 회복 및 생물 다양성을 위한 법을 공포했다. 이로 인해 2018년부터는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화장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었고, 올해 초부터는 식당 내 일회용 플라스틱 포크와 컵은 물론이고 종이컵 역시 식당 내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일부 국가들과 미국의 몇 개 주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제한하고 있지만, 플라스틱 포크와 컵, 접시 등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나라는 프랑스가 최초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환경을 위한 좋은 대책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급작스럽게 모든 것을 바꾸기에는 대체할 제품이 준비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우리의 현실은 플라스틱으로 둘러 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주변 어디를 봐도 곳곳에 플라스틱이 없는 곳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로 만들어진 세상에 이미 적응하고 있는 인간에게 탈플라스틱, 탈편의를 강요하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12) 안대한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 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국내석사 2018 p.24-25

우리의 인식이 변화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쓰레기는 늘어나고 현재 환경 문제에 대해 감히 언급하고 하고 있는 본인도 사실 지금까지도 배달음식을 주문하고 작품을 제작을 이유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용하며 본인의 편의를 만끽하고 있기에 그 아이러니한 상황까지도 작품을 제작하며 반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 할수록 본인 작품의 주제의식에 관한 고찰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2. 작품 표현 방법

본인은 대학원을 들어와서 처음 접한 돌을 가공하여 제작하는 일에 흥미를 느꼈다. 그리고 본인 작품은 돌이라는 자연적 재료를 이용하여 주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소재의 물성을 돌로 표현하거나, 본인이 겪은 경험을 토대로 재연하여 타인에게 공감을 유도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특히 비 내리던 날의 우연히 마주하게 된 골목길에서의 상황을 기점으로 누구나 생활 속 소비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형태와 소재의 쓰레기들, 그러한 우리 주변을 점령 하다시피한 이 쓰레기들 중 “스티로폼”을 중점적으로 돌로 표현하여 제작했다. 고무 오리 형태로 제작된 돌의 표면을 스티로폼의 재질처럼 표현하여 앞서 언급한 치유와 평화의 상징을 뜻하는 러버덕과는 반대로 나의 작품의 오리는 버려지고 홀로 떠다니는 【작품 3】 “미운 오리 새끼”로 표현되어 인간의 이기와 무분별한 자연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작품을 제작했다.

또 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주변의 사물들과 상황을 재연하여 작품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1) 다양한 재질로 표현된 돌의 가공

처음 돌을 접하게 되었을 때 막연히 딱딱하고 무겁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돌로 작업을 하면 할수록 돌의 특성과 돌 작업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돌은 저마다 다른 강도와 색이 존재하여 선택한 돌과 작업하는 기술에 따라서 그 돌의 진가를 나타낼 수 있다. 나는 외적인 모습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편견에 관한 작업을 하던 중 돌로 다른 사물의 물성을 표현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했다. 다양한 돌마다 각각 돌로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물질을 찾고 그 물질에 물성을 연구하였다.

본인이 직접 연구하고 본인 작업을 토대로 말하자면 앞서 말한 것처럼 다양한 돌 중 사암 같은 경우 다른 돌에 비해 강도가 연하고 입자가 고아서 다른 돌에 비해 가공시간도 빠르고 더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다른 돌들은 ‘칼로 열린 버터를 자르는 것처럼 잘 잘리지 않을뿐더러 탁하고 깨지거나 부러지는 느낌’ 이라면 사암은 ‘얼리지 않은 버터를 칼로 자르는 것처럼 칼날이 지그시 눌러 들어가 잘려지는 느낌’ 이다. 또 한 사암도 종류가 다양하고 강도가 강한 것도 있으며 색상 역시도 다양하다. 색이 갈색인 갈색 사암을 이용하여 도자기를 빚거나 조소과 실기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흙을 표현하였다, 사암에 특성상 핸드밀러로 손자국이나 조각칼의 흔적까지도 섬세하게 표현 가능하였다. 또 한 같은 부류인 녹사암을 이용하여 꽃을 폼을 때 사용하는 오아시스를 제작하기도 했다.

사암 종류가 아닌 강도가 강하고 어두운 색상이 특징인 화강암 종류인 마천석, 고흥석 종류의 돌을 이용하여 돌에 비해 차갑고 가벼워 보이는 금속 물질의 물성으로도 작업하였다. 이 돌들의 특성상 연마하면 광택이 잘나고 돌 본연의 색이 선명해져 금속표현에 용이하였다. 또 한 염화철과 같은 화학용품을 사용하면 돌 안의 철 성분이 부식하여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점이 금속으로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논문에 작성된 작업 중 우리가 산이나 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연석으로도 작품을 제작하였다. 자연석은 일반 석재공장에 있는 돌처럼 사람이 이용하기 쉽게 가공되어 있지 않고 자연환경과 위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태가 변화하여 색과 무늬, 그 크기가 다양하다. 자연석으로 제작한 물고기 형상작업은 최소한의 가공을 하여 자연석의 본래의 특징을 나타내려 노력했다.

그리고 이 논문에 가장 많이 보이며 현재 나의 작업에서 주로 쓰이는 대리석은 사암처럼 부드럽고 사암과 달리 연마작업을 하게 되면 광택이 잘나 건축 재료에도 많이 사용된다. 대리석의 부드러운 특징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현재까지 돌 조각으로 가장 선호되는 재료이다.

본인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대리석을 이용하여 스티로폼 재질을 표현하게 되었다,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인 ‘스티로폼’의 모습을 띄지만 반영구적인 재료이자 자연에 흡수되어도 전혀 해를 입히지 않는 재료로서의 그 본래의 가치를 가지고 표면적으로 물성만 변화되게 표현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본인의 작품【작품 5】 ‘새콤해’,【작품 6】 ‘비릿해’,【작품 9】 ‘from엄마’,【작품 10】 ‘from동해’는 대리석을 이용하여 일상 속 쉽게 접할 수 있는 가볍고 단열성이 뛰어나 많이 소비되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인 스티로폼 상자의 재질을 표현하여 제작하였다.

【작품 1】 ‘비 내리던 밤’에 물이 고여 있던 아스팔트 역시 고흥석의 특성을 연구하여 연마작업을 통해 고흥석 본래의 색과 광택을 뚜렷하게 나타내어 실제 물에 젖은 아스팔트와 비슷한 색감을 표현하였다.

【작품 8】 ‘폼 잡는 미운 오리 새끼’는 스티로폼끼리 우레탄폼으로 접착되어있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노란 사암의 특징인 부드러움을 이용해 우레탄폼의 변칙적인 몽글거림을 표현하여, 오리의 머리와 몸통 사이에서 뼈

저나와 있는 모습으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자연석과 대리석을 가공하여 결합한 작품【작품 11】,【작품 12】 ‘산란기’ 시리즈에서는 인위적인 색과 형태가 아닌 자연에서의 모습 그대로인 강 돌을 채취하여 물고기 형상으로 가공하고 하얀 대리석으로는 미운 오리 새끼와 여분의 스티로폼 조각을 제작하였다.

이처럼 자연적이면서 각각의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료인 돌을 이용해 돌 본래의 물성을 지니고, 다른 물체의 물성으로 변환하여 ‘환경오염’이라는 주제를 수반하고 있는 작품으로 제작하였다.

본인의 작품 주제로 환경오염의 주제의식을 보여주는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리 모양의 스티로폼은 사실은 그저 버려진 스티로폼 조각에 불과 했지만 그것이 어느 비 내리던 골목길에서 마주하여 똥똥 떠 있는 형상으로 본인에게 다가와서 이를 보며 오리 같다고 느꼈던 그때의 본인이 만들어낸 캐릭터이기도 하다. 흔하게 볼 수 있는 “러버덕”을 닮아있는 모양이지만 그렇기에 떠다니며 움직이는 스티로폼이 오리 캐릭터로 형성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던 것 같다. 또한, 식당가나 집 주변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묶여 쌓여져 있던 스티로폼 더미들은【작품 7】 ‘2+1’으로 표현되어 마치 그것들이 재활용되는 장소로 가기 위해 포장된 오리 선물꾸러미같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렇게 본인은 위 작품을 비롯해 대리석을 이용하여 오리의 형태로 가공한【작품 1】 ‘비 내리던 밤’,【작품 3】 ‘미운 오리 새끼’,【작품 4】 ‘미운 청둥 오리 새끼’,【작품 5】 ‘새콤해’,【작품 6】 ‘비릿해’,【작품 8】 ‘폼잡는 미운 오리 새끼’ 등 거의 모든 나의 연구 작품에서 ‘미운 오리 새끼’라는 캐릭터가 주제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혼합 매체 사용

현재 미술시장은 장르가 딱히 구분 없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작품을 표현하고 제작하여 관람자 앞에 선보인다.

본인도 앞서 말한 돌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관람자가 이해하고 공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혼합매체를 이용하여 작품을 표현하고 제작하였다.

본인 작품 【작품 1】 ‘비 내리던 밤’에서 본인이 작품을 시작하게 된 비가 내리던 골목의 한 장면을 입체적인 모습으로 담아내려고 하였다. 장면의 디테일을 위해 스테인리스 판, 파이프, 환 봉 등을 절삭하고, 알곤 용접하여 전봇대 가로등 제작하였으며, LED 조명을 삽입하여 조명효과를 주었다.

전봇대 중간부위에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 표지판을 시트지에 인쇄 출력하여 부착하였다.

전봇대 가로등 아래를 감싸고 있는 노랑, 검정색의 전봇대 안전표지판을 연상할 수 있게 스테인리스 판에 정질 마감 후 아크릴 스프레이로 도장 하여 제작했다.

또 한 그 찰나의 순간을 조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드로잉으로 그 주변의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작품 2】 ‘비 내리는 골목길’이라는 당시 본인이 마주한 배경과 상황을 볼 수 있는 작업도 진행했다.

돌만을 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한 다양한 재료 중 【작품 1】 ‘비 내리던 밤’에서는 아스팔트에 고여 있는 빗물을 표현하기 위해 크리스탈 레진을 사용하여 물이 고여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작품 3】 ‘미운 오리 새끼’는 스티로폼 상자를 포장할 때 사용하는 노란 박스테이프를 표현하기 위해 오리 머리 위에 붙어 있는 박스테이프의 형태를 얇은 스테인리스 판을 함석가위를 이용하여 절삭 하고 실제 테이프가 접혀 붙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그 위에 아크릴 스프레이 도장하여 제작하였다.

【작품 4】 ‘미운 청둥 오리 새끼’ 라는 작품에서도 【작품 3】 ‘미운 오리 새끼’ 에서 제작했던 박스테리어 형태를 제작하여 결합하였다. 오염된 이물질이 묻은 스티로폼 오리를 표현하기 위해 크리스탈 레진에 녹색 안료를 섞어 흘러내리게 표현하여 작품을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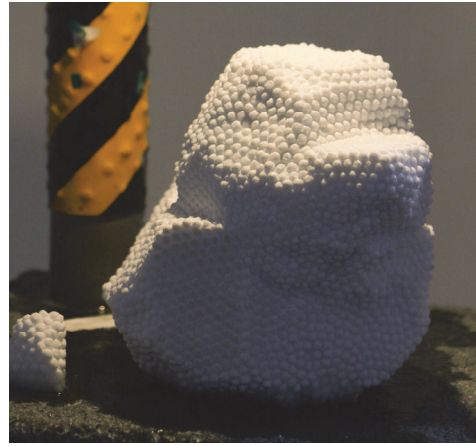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작품 5】 ‘새콤해’, 【작품 6】 ‘비릿해’ 작품에서는 딸기 물과 생선을 보관할 때 쓰이는 얼음이 녹은 듯이 보이도록 크리스탈 레진을 이용해 표현하였다. 딸기 꼭지와 생선 가시도 스테인리스판과 환봉을 그라인더와 함석가위를 이용해 절삭 하고 생선 가시와 딸기 꼭지 가운데 부위는 알곤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하였다.

【작품 7】 2+1은 다양한 크기의 스티로폼 상자를 빨간 노끈으로 묶어 가로등이나 도로주변에 내다 놓은 것을 표현한 작품으로, 세 마리의 미운 오리 새끼를 감싸고 있는 빨간 노끈은 샤텐 절단 가공된 스테인리스 띠를 그라인더로 절삭한 뒤 알곤 용접기로 용접하여 리본모양의 형태로 제작하였고, 빨간색 우레탄 도장으로 컬러링 하였다.

그리고 ‘【작품 10】 from동해’, ‘【작품 9】 from엄마’ 작품에서 사용된 혼합매체로는 일상에서 이용하는 택배 시장의 내용이 담긴 작품으로, 택배 라벨을 일러스트로 실제 택배 출력용지처럼 디자인하고 작품의 내용을 작성하여 시티지로 인쇄 출력하여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구입한 냉동식품, 파손 주의 스티커와 같이 대리석에 부착하였다.

이처럼 주재료인 돌과 다양한 혼합매체를 이용하여 관람자가 좀 더 작품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표현하여 제작했다.

3. 작품분석



【작품 1】 비 내리던 밤

【작품 1】 비 내리던 밤

연도: 2023

크기: 30x30x42cm

재료: 대리석, 스테인리스스틸, 우레탄도장, 혼합매체

제작방법

1. 8인치 그라인더에 습식 날을 장착하여 대리석을 절단한 뒤, 절단된 대리석을 건식 날을 장착한 4인치 그라인더로 가공하여 오리형태의 형상을 만든다.
2. 핸드밀러에 4mm 다이아몬드 오목 그라인딩 헤드를 장착하고 연마하여 위의 오리형태 형상 표면을 스티로폼 질감으로 만든다.
3. 금속 커팅날을 장착한 4인치 그라인더로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절단하여 기둥과 가로등을 제작하고 알곤 용접기로 용접한다.
4. 금속 절단기로 스테인리스 환봉을 절단한 뒤, 3.전봇대형상 윗부분에 알곤 용접기로 발판볼트를 용접한다.
5. 함석가위로 스테인리스 판을 절삭하고 망치와 정으로 스테인리스 판을 단조하여 전봇대 위험표지판을 제작한다.
6. 3.전봇대기둥 밑 부분에 4.전봇대 위험표지판을 감아 용접한 뒤, 전봇대 위험표지판에 아크릴 스프레이 검정색, 노란색을 사용하여 도장한다.
7. 전봇대와 접합된 가로등의 불빛 표현을 위해 LED전구를 사용한다.
8. 전봇대 위험표지판 윗부분에 절단된 스테인리스 판을 알곤 용접기로 용접한 뒤, 스테인리스 판 크기와 같은 크기의 쓰레기 무단투기 표지판을 시트지로 출력하여 스테인리스 판에 부착한다.
9. 정사각형으로 절단되어 있는 고흥석 판재 윗부분을 에어 툴에 잔다듬 노미를 장착하여 잔다듬 가공한 뒤, 우레탄 페인트 흰색으로 실선을 그려 아스팔트처럼 제작한다.
10. 아스팔트로 표현된 고흥석 판재위에 전봇대와 스티로폼으로 표현된 오리형태의 형상을 석재용 에폭시를 이용하여 접합한다.
11. 아스팔트위에 크리스탈 레진을 사용하여 빗물을 표현한다.

작품설명

비 내리던 늦은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로등 아래 집 집마다 내놓은 쓰레기들 사이로 스티로폼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드문드문 고여 있는 물웅덩이에는 스티로폼 조각들이 마치 물 위를 유유히 떠다니는 오리를 연상하게 하는 모습이었다.

본인에게서는 나름 강렬했던 그 모습은 집으로 돌아와 다시 곱씹어보니 인간의 이기로 인해 만들어진 각종 쓰레기와 특히 스티로폼과 같은 일회용품들이 세상에 만연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 밤의 생각들을 나의 조각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첫 작품으로 “【작품 1】 비 내리던 밤”은 평소 돌로 다양한 재료를 표현하려 시도했던 다른 나의 작품과 같은 결로, 대리석을 가공하여 만든 오리 형상의 표면을 스티로폼 표면의 질감으로 표현하여 비 내리던 밤 떠다니는 오리 같다고 느꼈던 그 날의 기억으로 ‘미운 오리 새끼’를 제작하였다.

호프만의 러버덕은 치유와 평화를 전해주는 오리라는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본인의 작품에서 오리는 인간의 이기로 인해 점점 파괴되어가는 자연에 대한 반성의 의미와 환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설득을 표현하기 위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작품 1】 “비 내리던 밤” 작품은 길거리 어느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를 담았다. 아스팔트로 표현된 돌 위에 전봇대 가로등,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표지판과 같이 흔하게 접하는 소재들을 표현하여 어찌면 친근한 소재들 사이에 자기 존재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스티로폼 오리”로 본인의 작품을 관람하는 관람자의 마음에 조금의 울림과 인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하였다.



【작품 2】 비 내리는 골목길

【작품 2】 비 내리는 골목길

연도: 2023

크기: 20x20x170cm

재료: 마카펜, 볼펜 색연필 채색

제작방법

1. 비 내리던 골목길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작품을 구상한다.
2. 떠올린 기억의 장면을 볼펜으로 스케치 한다.
3. 색연필과 마카펜으로 채색 후 볼펜으로 디테일한 선을 정리한다.
4. 하얀색 액자를 구매하여 액자들을 거친 사포로 연마하여 낡고 오래된 액자처럼 표현한다.
5. 액자에 바니쉬 스프레이 마감을 하고 액자에 그림을 넣어 보관한다.

작품설명

【작품 2】 “비 내리는 골목길은” 본인이 살던 동네의 배경으로 본인이 경험한 장면을 떠올려 드로잉 한 작업이다.

【작품 1】 ‘비 내리던 밤’ 은 대리석과 여러 혼합재료를 이용한 형상작업이라면 위 작품은 그날의 기억과 느낌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드로잉으로 표현하였다. 구도나 형태를 신경 쓰지 않고 관람하는 관람자가 본인이 그날 보고 느낀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길 바라면서 작품에 임했다. 특히 위에 말했듯 구도나 형태보다는 기억 속 그때의 분위기와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색감 표현에 집중했다. 어둡고 쾌쾌하면서 음산한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어두운색을 깔아 표현하고 그림의 하단 부분에 전봇대, 가로등 밑 ‘미운 오리 새끼’ 들은 마치 불 꺼진 어두운 무대 가운데 한 개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배우와 같이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어 빛나는 오리와 주변을 밝게 색칠하여 돋보일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이 작품의 배경을 보면 전봇대 가로등, 쓰레기 더미, 빨간 벽돌로 지어진 상가, 건물 밖으로 내어놓은 화분 등 특별한 것 하나 없이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미운 오리 새끼’ 를 삽입하여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상 속에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무분별한 플라스틱의 소비를 줄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작품 3】 미운 오리 새끼

【작품 3】 미운 오리 새끼

연도: 2023

크기: 21x21x16cm

재료: 대리석, 고흥석, 스테인리스스틸

제작방법

1. 석재전용 건식 날이 장착된 4인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대리석을 절단, 에어 툴로 가공하여 오리의 형상을 만든다.
2. 핸드밀러에 4mm 다이아몬드 오목 그라인딩 헤드를 장착하여 1.의 오리형상 표면과 스티로폼 파편으로 표현할 대리석 조각을 스티로폼 질감으로 만든다.
3. 함석가위로 스테인리스 판을 절삭하여 박스테이프형태로 만들고, 노란 아크릴 스프레이 도장 후 노란 포장용 박스테이프 형태로 제작한다.
4. 함마드릴에 석재전용 타공기리를 장착하여 오리형상 머리 윗부분을 타공하고, 그 위에 박스테이프로 표현된 스테인리스 판을 석재 에폭시를 사용해 접합한다.
5. 고흥석 판재 윗면을 건식 날을 장착한 4인치 그라인더를 이용해 빗물이 퍼지는 모습으로 가공한 뒤, 4인치 그라인더에 하이랩 연마날을 장착하여 광 마감한다.
5. 위의 고흥석 판재위에 스티로폼 파편으로 표현한 대리석조각을 석재 에폭시를 사용해 접합하고 중간부분에 오리형상을 안착시킨다.

작품설명

【작품 3】 “미운 오리 새끼” 는 비 내리던 밤 가로등 아래 물웅덩이 위 불빛에 비친 스티로폼 조각을 마주하고, 본인의 눈에 들어온 오리 형태를 좀 더 캐릭터화하여 제작한 초기 캐릭터 작업이다. 험악한 인상과 특 튀어나온 입이 특징인 ‘미운 오리 새끼’ 는 마치 동화원작의 미운 오리 새끼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나의 작품 ‘미운 오리 새끼’ 는 모습만이 아닌 스티로폼으로 인해 거리가 더럽혀지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이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플

라스틱 제품을 과도하게 소비하고 무분별하게 낭비하여 지구상의 모든 생물 외 인간만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기심을 미운 오리 새끼로 표현하였다. 미운 오리 새끼 캐릭터를 구상하던 중 스티로폼의 특징과 유사하게 물에 잘 뜨는 재질인 고무로 제작되는 러버덕이 떠올랐다. 관람자가 보기에든 전체적인 실루엣은 러버덕의 모습과도 닮아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러버덕은 ‘치유와 평화’를 상징한다면 본인은 미운 오리 새끼 캐릭터를 통해 인간의 ‘이기심과 만행을’ 나타내려한다.



【작품 4】 미운 청둥 오리 새끼

【작품 4】 미운 청둥 오리 새끼

연도: 2023

크기: 22x38x31cm

재료: 대리석, 녹사암, 스테인리스스틸 혼합매체

제작방법

1. 8인치 그라인더에 석재전용 습식 날을 장착하여 녹사암을 절단, 가공하여 오리의 머리 형상을 만든다.
2. 위와 마찬가지로 습식 날이 장착된 8인치 그라인더로 오리 머리형상과 결합할 몸통 형상을 대리석을 절단, 가공하여 만든다.
3. 머리형상과 몸통형상을 석재전용 에폭시로 접합하여 하나의 오리형상으로 만든다.
4. 핸드밀러에 4mm, 8mm 다이아몬드 오목 그라인딩 헤드를 각각 장착하여 접합한 오리 형상 표면을 두 가지 지름크기를 섞어서 스티로폼 질감으로 만든다.
5. 스티로폼이 오염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녹색 안료를 섞은 크리스탈레진을 흘려 굳힌다.
6. 함석가위로 스테인리스 판을 절삭하여 박스테이프형태로 만들고, 노란 아크릴 스프레이 도장 후 노란 포장용 박스테이프 형태로 제작한다.
7. 함마드릴에 석재전용 타공기리를 장착하여 오리형상 머리 윗부분을 타공하고, 그 위에 박스테이프로 표현된 스테인리스 판을 석재 에폭시를 사용해 접합한다.

작품설명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스티로폼을 사용할 때 한 번 사용하게 되면 재활용으로 분리수거 하거나 폐기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리수거가 된 스티로폼의 형태를 보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짐작이 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종종 파손되어 형태를 알아볼 수 없거나 오랜 기간 방치되어 색이 변색 되고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이끼가 자라있기도 한 스티로폼을 본 적 있다. 환경을 생각해 스티로폼을 재활용하는 사업들이 늘어나는 뉴스 기사와는 다르게 무분

별하게 버려져 먼지나 흙을 비롯한 여러 이물질이 묻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스티로폼이 훨씬 더 많아서 재활용하기보다 새로 생산하는 것이 훨씬 적은 비용이 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작품 4】 “미운 청둥 오리 새끼” 는 위의 말처럼 건설현장과 다양한 목적에 의해 쓰여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오래 방치되어서 재활용되지 못하는 스티로폼을 표현하여 무분별한 소비를 줄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품 5】 새콤해

【작품 5】 새콤해

연도: 2023

크기: 24x21x22cm

재료: 대리석, 스테인리스스틸, 우레탄도장, 혼합매체

제작방법

1. 석재전용 건식 날이 장착된 4인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대리석을 절단, 에어 툴로 가공하여 오리의 형상을 만든다.
2. 8인치 그라인더에 석재전용 습식 날을 장착하여 대리석을 절단, 에어 툴로 가공하여 일회용 딸기포장상자 형상을 만든다.
3. 핸드밀러에 4mm 다이아몬드 오목 그라인딩 헤드를 장착하여 오리 형상과 딸기포장상자 표면을 스티로폼 질감으로 만든다.
4. 스테인리스 판을 함석가위를 사용하여 딸기 잎 모양으로 절삭한 후, 스테인리스 환봉을 금속절단기로 절단하여 잎 위에 꼭지형태로 알곤 용접기를 사용하여 용접한다.
5. 용접한 딸기 꼭지를 녹색 아크릴 스프레이로 도장하고, 합마드릴에 석재전용 타공기리를 장착하여 오리형상 머리 윗부분과 딸기포장상자를 타공하고, 오리의 머리와 딸기포장상자에 접합한다.
6. 석재 에폭시를 사용하여 오리형상을 딸기포장상자에 접합한다.
7. 크리스탈 레진에 붉은색 안료를 섞어 오리와 딸기포장상자 주변에 부어 굳히고 딸기 물이 든 것처럼 표현한다.

작품설명

스티로폼은 단열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많이 쓰이기만 그 우수함으로 인해 음식을 담는 포장재로 쓰이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더 자주 접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장이나 마트 식품코너에 들어서면 많은 식품들 중 특히 농수산물을 포장할 때 스티로폼 포장재를 많이 사용한다. 그 중 농산물인 딸기 포장에도 예외는 아니다. 딸기의 형태보존과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딸기는 스티로폼 상자로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다. 딸기를 섭취하고 온전히 버려져 재활용되는 스티로폼도 있지만 【작품 5】 “새콤해” 는 위에 말했듯 딸기 물이

나 이물질이 묻어 재활용하지 못하고 버려져 방치되어 있는 스티로폼 상자를 표현하였다. 스티로폼 상자와 미운 오리 새끼에 색소를 첨가한 크리스탈 레진을 묻혀 딸기 물에 물든 스티로폼을 표현하였고 절삭 한 스테인리스에 우레탄 도장하여 제작된 딸기 꼭지를 접합하여 제대로 재활용하지 않은 모습 또한 표현하였다. 우리가 상품을 소비할 때 좀 더 환경적인 소재의 포장재를 구분하고 소비하여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을 줄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작품 6】 비릿해

【작품 6】 비릿해

연도: 2023

크기: 31x21x30cm

재료: 대리석, 스테인리스스틸, 혼합매체

제작방법

1. 석재전용 건식 날이 장착된 4인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대리석을 절단, 에어 툴로 가공하여 오리의 형상을 만든다.
2. 8인치 그라인더에 석재전용 습식 날을 장착하여 대리석을 절단, 에어 툴로 가공하여 일회용 생선 포장상자 형상을 만든다.
3. 핸드밀러에 4mm 다이아몬드 오목 그라인딩 헤드를 장착하여 오리 형상과 생선 포장상자 표면을 스티로폼 질감으로 만든다.
4. 금속 커팅날을 장착한 4인치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스테인리스 판, 환봉을 생선의 뼈대와 꼬리 형태로 절삭하고 알곤 용접기로 용접한다.
5. 오리가 생선뼈를 입에 물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기 위해 합마드릴에 석재전용 타공기리를 장착하고 오리 입 부분을 타공하고, 용접된 생선뼈대를 석재 에폭시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6. 금속편칭기로 스테인리스판을 타공하고 생긴 원형과편을 크리스탈레진과 섞어 오리와 생선 포장박스에 부어 굳혀 생선포장박스에 생선비닐이 붙어있는 것처럼 표현한다.

작품설명

수산시장에 들어서면 각종 생선이나 해산물만큼이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스티로폼 상자이다. 여러 종류의 생선과 해산물을 현장에서 바로 맛볼 수도 있지만 스티로폼 상자에 담겨 시장에 납품되거나 손님에게 포장되어 팔리거나 배송된다.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수산물 또한 온도에 매우 취약하여 스티로폼 상자는 수산시장에서 필수로 쓰이고 있다. 물론 상인들도 스티로폼 상자를 재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생선이나 해산물 손질, 운반하는 과정에서 스티로폼 상자가 파손되거나 이물질로 인해 재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파다하다. 이처럼 【작품 6】 “비릿해” 는 수산시장이나 우리가 수산물을 포

장 배송 받고난 뒤 이물질이나 파손 등으로 버려져 재활용되지 않는 스티로폼 상자를 표현하였고 앞으로 나아가 좀 더 환경적인 소재의 포장재 개발 기원과 더불어 스티로폼 포장재의 재활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가 담고 있다.



【작품 7】 2+1

【작품 7】 2+1

연도: 2023

크기: 20x30x34cm

재료: 대리석, 스테인리스스틸, 우레탄도장

제작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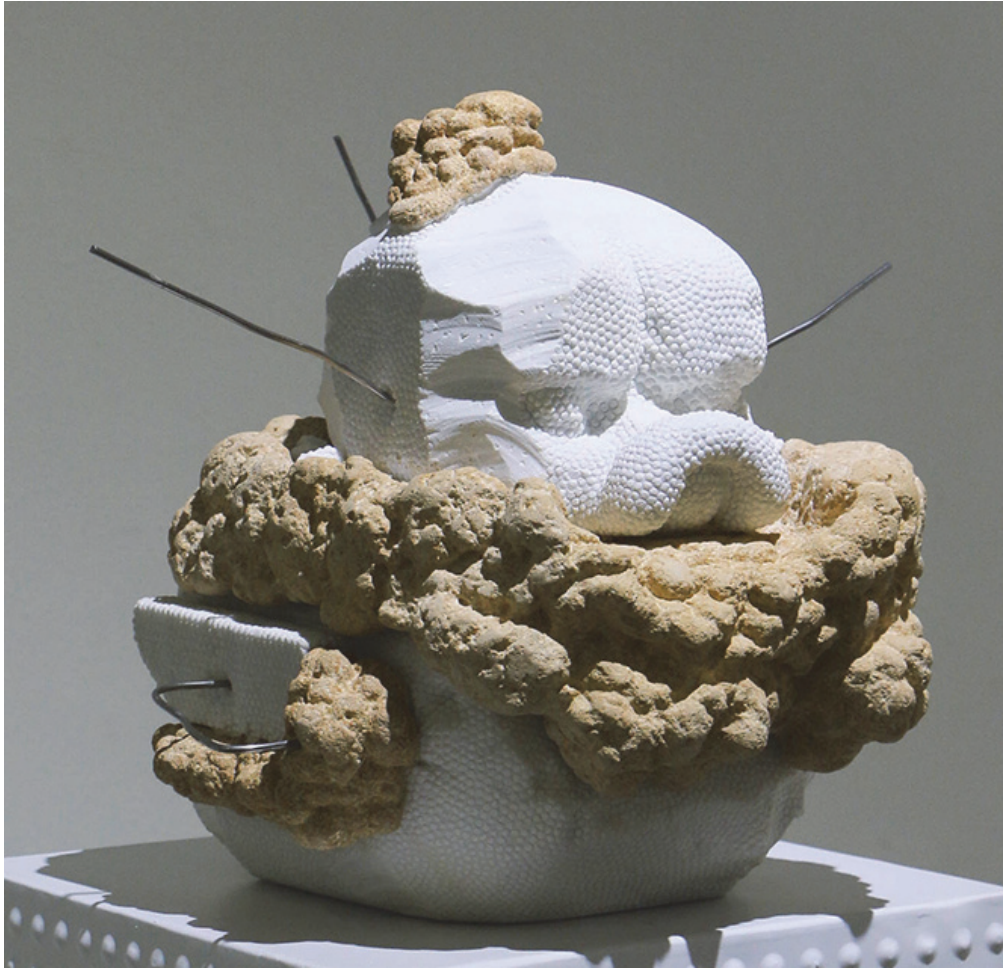
1. 8인치 그라인더에 석재전용 습식 날을 장착하여 대리석을 세 가지 크기로 구분 절단하여 각기 다른 크기의 세 마리 오리 형상을 만든다.
2. 석재전용 건식 날이 장착된 4인치 그라인더와 에어 툴을 사용하여 오리의 형상을 묘사한다.
3. 핸드밀러에 지름이 3mm, 4mm, 8mm 각각 다른 다이아몬드 오목 그라인딩 헤드를 장착하고, 크기가 제일 작은 오리 형상은 3mm, 중간크기는 4mm, 크기가 가장 큰 오리형상은 8mm헤드를 장착하여 표면을 스티로폼 질감으로 만든다.
4. 크기가 가장 큰 오리형상 밑 부분을 석재전용 건식 날이 장착된 4인치 그라인더로 부분 가공하여 열선으로 스티로폼을 잘라낸 것처럼 표현한다.
5. 3개의 오리형상을 석재전용 타공기리를 장착한 함마드릴로 타공하여, 타공한 부위에 석재전용 에폭시와 스테인리스 환봉을 삽입하여 밑에서부터 크기가 큰 순으로 쌓아 접합한다.
6. 스테인리스 띠를 금속 커팅날이 장착된 4인치 그라인더로 절단하고, 알곤 용접기로 용접하여 리본 모양을 만든다.
7. 만들어진 스테인리스 리본형상을 빨간색 우레탄 페인트 도장하고 결합된 오리 형상에 석재에폭시를 이용하여 접합한다.

작품설명

길거리를 걷다 보면 식당가 앞이나 가로등을 포함한 인도 주변에 재활용을 위한 스티로폼 상자를 테이프나 끈으로 묶어 쌓아두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가로등 아래에서 빛을 받으며 쌓여있는 그것들은 마치 크리스마스에 트리 주변에 선물상자를 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매일 여러 곳곳의 가로등 트리 밑

다양한 크기의 스티로폼 상자들이 한데 묶여 재활용과 폐기를 반복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작품 7】 ‘2+1’ 작업을 제작하게 되었다.

밤이 되면 쌓이고 낮이 되면 비워 지지만 매번 다시 다른 형태로 쌓여, 반복적으로 거리의 한 부분에 자리 잡는 이 현상을 보면 우리 인간이 플라스틱 일회용 포장재를 수없이 소비하고 낭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 말하고 싶어 제작하게 되었다.



【작품 8】 폼 잡는 미운오리새끼

【작품 7】 폼 잡는 미운 오리 새끼

연도: 2023

크기: 38x36x33cm

재료: 대리석, 사암, 스테인리스스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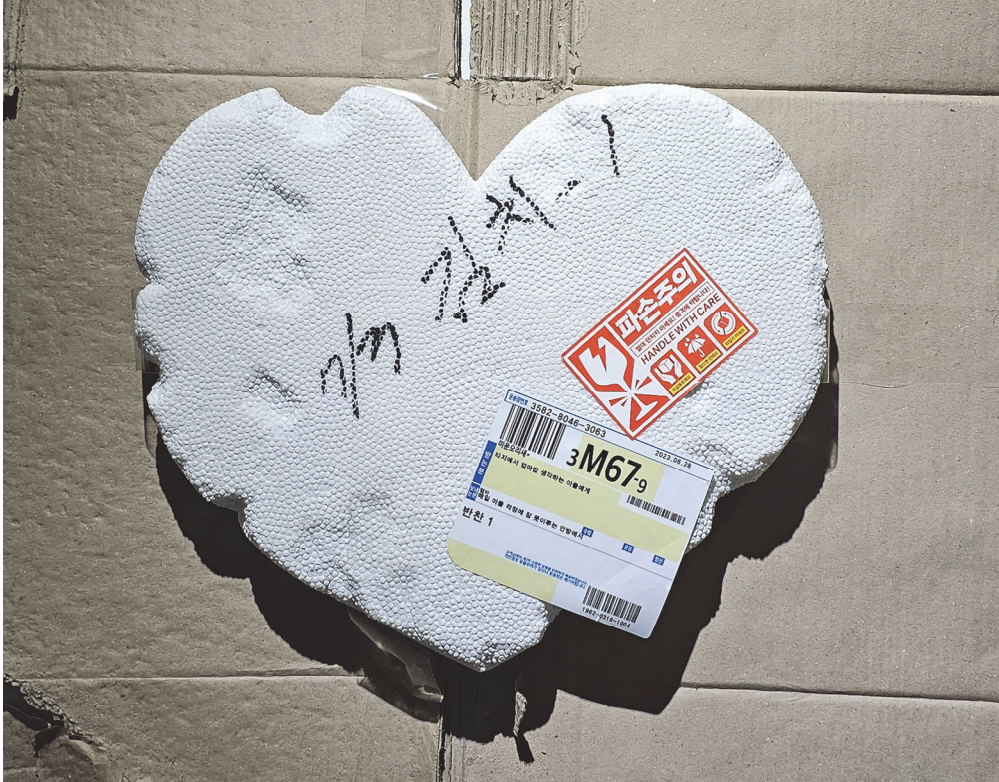
제작방법

1. 8인치 그라인더에 석재전용 습식 날을 장착하여 대리석을 오리머리, 몸통을 나누어 절단한다.
2. 석재전용 건식 날이 장착된 4인치 그라인더와 에어 툴을 사용하여 오리의 머리와 몸통형상을 묘사한다.
3. 머리와 몸통사이에 결합할 사암과 오리머리 윗부분에 접합할 사암을 위와 같이 8인치 그라인더로 절단한 뒤, 4인치 그라인더와 에어 툴을 사용하여 우레탄 폼을 싸놓은 것처럼 묘사한다.
4. 핸드밀러에 지름이 4mm 다이아몬드 오목 그라인딩 헤드를 장착하고, 오리머리와 몸통형상 표면을 스티로폼 질감으로 만든다.
5. 오리머리와 몸통 우레탄 폼을 표현한 사암을 석재전용 타공기리를 장착한 함마드릴로 타공하여, 오리머리와 몸통사이에 사암을 두고 타공한 부위에 석재전용 에폭시와 스테인리스 환봉을 삽입하여 접합한다.
6. 접합된 오리형상 머리 부분과 몸통, 사암부분을 석재전용 타공기리를 장착한 함마드릴로 타공하고, 타공한 부위에 석재 에폭시와 구부린 스테인리스 환봉을 삽입하여 스티로폼과 스티로폼사이에 우레탄폼을 바르고 환봉으로 고정된 것처럼 보이게 표현한다.

작품설명

스티로폼은 위의 말처럼 포장재에 많이 쓰이고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일회용품 제품들이 많이 알 수 있지만 금형작품을 제작할 때도 가공되어 조형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재료로도 많이 사용된다. 본인은 금형 작업 전 스티로폼을 깎고 스티로폼과 스티로폼 사이에 우레탄폼을 사용하여 붙여 형태를 만들어내는 일을 해 본 경험이 있다. 이와 같은 작업하면서 잘 가공되어 금형 작업까지 진행된 형상이 있는 반면에 크기나 비율에 오류가 있어 버려지거나 잠시

작업이 중단되어 작업실 한쪽 귀퉁이에 방치된 많은 스티로폼 형상들을 보았다. 오랜 시간 방치되고 변색 되어 삭아서 으스러지고 가루가 날려 이제는 재 활용할 수 없는 형상들을 떠올려 【작품 8】 “폼 잡는 미운 오리 새끼” 를 제작하였다. 우레탄폼의 ‘폼’ 자를 활용하여 나름의 언어유희를 담아 제목을 지었고, 위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스티로폼 재활용의 경각심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작품 9】 from엄마

【작품 9】 from엄마

연도: 2023

크기: 38x32x5cm

재료: 대리석, 혼합매체

제작방법

1. 8인치 그라인더에 석재전용 습식 날을 장착하여 대리석판재를 ‘하트’ 모양으로 절단하고, 석재전용 건식 날이 장착된 4인치 그라인더와 에어 툴을 사용하여 하트모양을 묘사한다.
2. 핸드밀러에 지름이 4mm 다이아몬드 오목 그라인딩 헤드를 장착하고, 하트 모양형상 표면을 스티로폼 질감으로 만든다.
3. 실제 택배출력용지 이미지와 비슷하게 제작한 일러스트작업에 작품내용을 입력하여 시트지로 출력한다.
4. 출력한 시트지와 구매한 파손주의 스티커를 하트모양 대리석판재 표면에 부착한다.
5. 하트모양 대리석판재 표면에 유성매직을 이용해 택배상자에 메모를 한 것처럼 ‘7/3 김치-1’ 이라고 적는다.
6. 폐기된 종이상자를 펼쳐서 배경으로 사용한다.

작품설명

상품을 받거나 보내야 할 때 언제 어디서든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작품 9】 “from엄마” 는 식품을 받을 때 자주 사용하는 스티로폼 상자의 일부를 재연한 작품이다. 택배 스티커를 부착하고 하트 형상으로 제작하여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작품의 겉모습만 보면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한 작품이란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이 작품의 더 깊은 내용은 보낸 이가 무사히 도착하기 바라는 마음에 정성스럽게 포장하였지만 내용물을 받고 필요 없어진 스티로폼은 결국 버려지는 것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본인 또한 일회용품의 사용을 지양하는 생각과는 무관하게 우리 주변에 너무 만연해 있는 일회용품포장재의 사용을 알 수 있는 작품이다.

하트라는 형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의 끼니를 생각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사랑과는 별개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회용품과의 공존하고 있는 본인의 아이러니한 생활 속 한 모습을 일부 담아내고 있다.



【작품 10】 from동해

【작품 10】 from동해

연도: 2023

크기: 45x28x5cm

재료: 대리석, 혼합매체

제작방법

1. 8인치 그라인더에 석재전용 습식 날을 장착하여 대리석판재를 생선 ‘도미’ 모양으로 절단하고, 석재전용 건식 날이 장착된 4인치 그라인더와 에어 툴을 사용하여 도미형상을 묘사한다.
2. 핸드밀러에 지름이 4mm 다이아몬드 오목 그라인딩 헤드를 장착하고, 도미형상 표면을 스티로폼 질감으로 만든다.
3. 실제 택배출력용지 이미지와 비슷하게 제작한 일러스트작업에 작품내용을 입력하여 시트지로 출력한다.
4. 출력한 시트지와 구매한 냉동식품 스티커를 도미형상 대리석판재 표면에 부착한다.
5. 도미형상 대리석판재 표면에 유성매직을 이용해 택배상자에 메모를 한 것처럼 ‘6/28 도미-1’ 이라고 적는다.
6. 폐기된 종이상자를 펼쳐서 배경으로 사용한다.

작품설명

【작품 10】 “from동해” 는 앞서 설명한 【작품 9】 ‘from엄마’ 의 연작 시리즈이며 생선과 해산물과 같은 택배를 받기 위해 택배를 주문했을 때 사용되는 스티로폼 상자의 일부를 표현한 작품이다. 수산물을 보내거나 받을 때 신선함과 신속함을 위한 냉동식품, 긴급배송스티커를 부착하여 관람자들이 더욱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본인이 ‘바다’ 하면 떠올리는 생물은 물고기다, 그중에 도미 형상을 스티로폼 재질로 제작하여 버려진 스티로폼 상자의 일부를 표현하였다. 이 작품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보낸 이가 ‘동해’ 인데 지구의 일부인 동해를 의인화하여 동해는 우리 인간에게 자신의 일부를 내주지만, 정작 인간은 ‘동해’ 에게 환경오염만 안겨준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더불어

어 우리가 환경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국 미래에 동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저 스티로폼과 같은 쓰레기가 전부일 것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작품 11】 산란기

【작품 11】 산란기

연도: 2022

크기: 19x11cm

재료: 자연석, 대리석



【작품 12】 산란기

【작품 12】 산란기

연도: 2022

크기: 25x13cm

재료: 자연석, 대리석

제작방법

1. 물가에서 최소한의 가공으로 물고기 형태를 제작할 수 있는 자연석을 선별하여 채취한다.
2. 채취한 자연석을 석재전용 건식 날이 장착된 4인치 그라인더와 에어 툴을 사용하여 자연석 본연 그대로의 모양과 무늬가 남을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가공하여 물고기 형상을 만든다.
3. 에어 툴과 핸드밀러에 다이아몬드 각종 연마 헤드를 장착하여 물고기 형상을 묘사한다.
4. 핸드밀러에 지름이 4mm 다이아몬드 오목 그라인딩 헤드를 장착하고, 자르고 남은 대리석조각을 사용하여 스티로폼 파편을 표현하고 작은 오리형상을 스티로폼 질감으로 만든다.
5. 자연석으로 제작된 물고기형상의 배와 입부분에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스티로폼 파편, 오리형상을 석재에폭시를 이용하여 접합한다.

작품설명

뉴스나 방송 매체에서 인간이 버린 해양쓰레기들을 먹고 죽은 생물들을 보도한 기사나 영상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내가 봤던 영상은 뱃속에 각종 플라스틱이나 폐기물이 가득한 고래, 물고기, 새, 거북이 등으로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비춰졌다.

위 작품 산란기 시리즈는 인간의 이기로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목숨을 잃는 생물들 중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물고기를 자연석을 가공하여 형상화하였다. 뱃속에 알이 가득 차 죽어서도 알이 뿔어져 나온 모습은 마치 산란기에 죽은 물고기처럼 보이지만, 이는 알이 아닌 이간이 버린 스티로폼을 먹고 죽어 죽은 물고기 배 밖으로 스티로폼이 뿔어져 나온 것을 표현하였다.

【작품 11】 “산란기” 는 스티로폼 먹고 죽은 물고기 뱃속에 스티로폼이 가득하고 입안에는 아직 삼키지 못한 스티로폼 조각을 ‘미운 오리 새끼’ 형상으로 표현하였고 【작품 11】 “산란기” 는 뱃속에 가득한 스티로폼 조각을 ‘미운 오리 새끼’ 로 표현하였다. 이 시리즈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지구에 살아가는 다른 생물들은 고통 받고 있다는 의미를 담아 제작하였다.

Ⅲ.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본인의 작업의 시작점을 되돌아보고 현재 본인이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것에 중심을 두고 작업을 하고 있는가 하는 설명을 하기 위해 작품의 형성배경과 그에 따른 주제들에 관한 내용을 서술했다.

그리고 본인이 작품을 통해 근본적으로 알리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 일상에 만연해 있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에 관한 내용을 담기 위해 본인 스스로가 경험하고 실생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물들을 작품에 옮겨 제작하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전의 본인 작품을 돌아보면 돌이라는 재료로 이루어지는 조각 작업에 흥미를 느끼고 그 재료가 표현할 수 있는 재료적 특성을 알아가며 제작함에 있어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로 경험하게 된 골목길에서의 ” 미운 오리 새끼 “와의 강렬했던 첫 만남이 추적추적 비가 내리던 우울하고 냄새나는 골목에서 나의 작품의 주제를 담은 매개체가 될 것 이라는 것을 이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이는 분명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라고 자각하며 환경에 관해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본인의 들로 제작된 스티로폼 작품을 좀 더 연구하고 발전시켜 앞으로 현재의 지구가 겪고 있는 현상을 예술이라는 장르로 표현하고 우리 인간의 삶에 미치는 다양한 오염사례와 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형상을 제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설치작업과 미디어를 통한 작업도 병행하여 본인의 작품이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 윌 맥컬럼 『플라스틱제로 플라스틱 없는 삶』, 하인해 옮김, 북하이브 (주)타임교육 C&P, 2020
- * 마이클 스타코위치 『우리가 바다에 버린 모든것』, 서서재 옮김, 하바랄, 2023
- * 이동학 『쓰레기책(왜 지구의 절반은 쓰레기로 뒤덮이는가)』, 개인저자, 오도스, 2020
- * 인포비주얼 연구소 지음, 『그림으로 읽는 친절한 플라스틱 이야기』 위정훈 옮김, 도서출판 북피움 2021
- * 루시 시글 『지구생활자를 위한 시시콜콜 100개의 퀘스트』, 이상원 옮김, 도서출판 지상의책 2023

《참고논문》

- * 홍수연 『통영 굴 양식장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로 인한 해변오염 평가 및 투기량』, 경남대학교 첨단공학과 국내박사 2014
- * 최형진 『플라스틱 폐기물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인벤토리 구축 : 포장재와 일회용품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2023
- * 안대한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 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국내석사 2018

《홈페이지》

- * 러버덕 관련한 기사 관련

<https://daishinblog.tistory.com/1700> 출처 : 러버덕 프로젝트 서울 공식페이스북
(2014. 10. 17. 08:00입력)(2023.11.14. 02:57 참고)

<https://biz.chosun.com/distribution/channel/2022/12/07/B6SJHWWTONCLJNMHAG7NQQMY>

UE/ 출처 : 조선비즈 (2022. 12. 07. 09:27입력)/(2022.11.14. 03:11 참고)
[https://ko.wikipedia.org/wiki/%EB%9F%AC%EB%B2%84_%EB%8D%95_\(%EC%98%88%EC%88%A0%ED%92%88\)#cite_note-ekn-5](https://ko.wikipedia.org/wiki/%EB%9F%AC%EB%B2%84_%EB%8D%95_(%EC%98%88%EC%88%A0%ED%92%88)#cite_note-ekn-5) 출처: 위키백과(2023.4.25.10:58입력)/(2023.11.14. 02:58 참고)

ABSTRACT

through Styrofoam environmental pollution Expression

- Focusing on the researcher' s work -

Kim, Jae In

Departmen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culpture

Sungshin Women' s University

In many cases, the question of what kind of environment one lives in cannot be determined just by looking at what happens around oneself. In modern times, events and accidents from around the world can be easily accessed and experienced indirectly through numerous articles and video media. Among the many problems related to environmental pollution, which are emerging as modern problems, I became interested in the indiscriminate use of disposable products, and began to use it as a medium to carry out work related to my current work.

There is no doubt that environmental pollution is a problem that the whole country and the world is concerned about, not just the individual, but the fact that it is being ignored even though it is a critical situation is accompanied by the problem of what kind of environment we are in as mentioned above.

Plastic, known as an all-purpose material created by mankind for

convenience, is called an artificial material that was developed in the 19th century and quickly became popular around the mid-20th century. To this day, it has become a very large proportion of disposable products, and the trend of its use has risen sharply, and the production rate and The cost of disposal has also increased enormously.

Although they are used for a variety of purposes, they are not used for a long period of time; half of them are discarded before 4 years, and we all live in an “environment” where the consumption of disposable products is bound to increase to meet the demands of modern people who demand convenience.

Environmental activists, installation artists, or environmental artists are frequently warning us of contamination and change in our environment, which has rapidly increased in disposable products, especially plastic materials. I hope that by watching my current work with the same mind as them, I will be able to create cases that promote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is paper is based on the work I submitted to the 2023 Master’s Exhibition and composed the 2022 and 2023 works as follows.

In Chapter 1, the introduction, I described the purpose of producing my work and the direction of research in the future.

In the main body of Chapter 2, first, the background of the work is explained in more detail and the works that promote awareness of the environment are described. Second, I described my method of creating my own work to express this and described the theme and materials. Third, by individually explaining my research works, I described what kind of subject

matter I have.

In Chapter 3, the conclusion summarizes the entire content of this paper and describes the direction needed for my future work.